

새로 선출된 평의회

평의회원이 새로 선출되면 사람들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의회에 변화가 있게 마련이다. 이 변화가 평의회가 앞으로 일하는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초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자기의 결정이 평의회에 도움이 되는지 혹은 대립을 가져오는지 생각해 보고 대립을 초래한다면 기도와 대화를 하여야 한다.

1. **평의회** - 평의회 결정이 형제회 생활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회원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이해심을 갖고 솔직한 대화로 대처해야한다. 평의회 결정에 다른 의견이나 불만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대화를 통하여 소통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고 필요한 일이라도 반대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지도 않고 새로운 것이면 무조건 받아 들이려한다. 변화에 저항하는 완고한 사람은 자기만이 프란시스칸 삶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평의회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잘 식별하여야 한다. (백퍼센트 옳고 그름이 아니라도)

2. **\$\$\$\$** - 돈 문제가 나오면 의견이 분분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건전한 형제회가 되기 위해서는 “분담금”을 올려야 할 때도 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반대가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형제회 살림은 안정된 자원 확보가 필요하며 새로운 수입원이 필요할 때가 있다. 물론 올려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올릴 수 있는 합당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 회칙 24조와 25조를 보면 서약(입회)회원은 서약할 때 *형편껏* 형제회의 경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형제회 형편에 따라 평의회는 경비문제를 회원들과 의논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 대해 평의회는 책임을 진다. 반면에 회원들은 평의회와 형제회를 힘껏 도와야 한다. 형제회 생활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평의회가 하기에 달렸다. 돈 문제는 예민한 사항이다. 고령의 회원에게는 특히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대학 등록금, 주거비, 식대,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의복비, 보험료등 지출이 만만하지 않다. 형제

회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할 수도 있다.

3. **WOW!** 회원 각자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함께 형제회를 지원해야 다. 회원에게 무슨일이 생기면 형제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각급) 평의회에 건의하는 회원들의 의견은 다른 회원들의 의견과 조정을 거쳐 모아져야 한다. 대화는 서로 존경심을 갖고 예의 바르게 경청 하면서 해야 한다. 그것은 *형제회 생활이 지향하는 공동선 대해 프란치스칸으로써 얼마나 헌신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인적인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이나 더 하고 빼고 하는 일이 허용되어야 한다. 의견을 조정하여 모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형제회 성장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형제회 운영과 발전에 대한 프란치스칸 정신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의견을 낸다는 것은 프란치스칸적, 복음적 성소를 잘 이해한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평의회가 다루어야 할 문제점이다. 평의회가 하는 일은 그 잘 잘못을 짚어봐야 한다. 열린마음으로 격려하는 것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다. 프란치스칸은 형제회에 맞는 대화의 길을 모색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하는 대화는 형제회 생활의 큰 열매를 맺을 것이다. 누군가 말했듯이 “**꼭 할일**”은 “**꼭 하도록**”

4. 회칙 제24조:

평의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촉진하기 위해 형제회의 정기적 집회와 빈번한 만남을 가지며, 다른 프란치스칸 그룹, 특히 청년 그룹과의 만남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모든 이가 형제회 생활에 열심하도록 격려하며 프란치스칸 삶과 교회의 삶이 향상되도록 더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이 친교는 사망한 형제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바쳐 줌으로써 그들과도 지속된다. (회칙 제24조)

한 달에 한번 세 네시간 만나서 형제회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형제들이 만나는 시간은 잠 자는 시간 빼고 깨어

있는 5,840시간 중 36 내지 48시간에 해당한다. 이 짧은 시간에 일 년 내내 하루 종일해야 하는 프란치스칸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좀 더 자주 만나야 한다. 또한 **모임을 어떻게 하느냐가 모임의 질을 좌우한다.** 서약한 프란치스칸들은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구형제회 모임도 상당부분 단위형제회에서 나온 의견의 영향을 받는다.

정기 모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평의회는 형제회를 개선할 수 없다. 정기 모임에서 소그룹 토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 모임 횟수를 늘여 형제회 생활을 풍요하게 할 수도 있다. 가능한 한 서로 서로 의견을 나누어라. 정기모임 밖에서 소그룹이 생기면, 거기서 나온 의견과 결론을 정기모임에서 나눈다. 평의회는 정기모임 밖의 소그룹을 도와 형제회 생활에 도움이 되는 회원이 되도록 한다. 무엇을 바꾸면 그 결과가 어떨것인지 알고 하라. 바꾸는 것이 다 형제회를 위하여 좋은 것이 아니다.(3-4번 시험해 보라) 필요한 것만 바꾸어라. 형제회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만들어라. 필요에 따라 검토하고 개선하라. 해 보면 또 바꿀 부분이 생길지 모른다. “옛날 부터 이렇게 해 왔다”라는 생각에 매달리지 마라. 여태 해보지 않은/성령께서 일러주시는 새로운 가능성에 문을 열어 두라.

5. 양성- 각급 평의회는 양성팀이 **초기양성과 영속적양성**을 잘 하도록 돕는다. 프란치스칸 삶에서 양성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재앙이다. 영속적양성을 소홀히 할때 신심에 영향을 줄 수있다. 양성을 소홀히 하면 형제회가 불균형하게 되며 우리의 재속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양성을 잘 못 하면 가난한 사람, 평화를 위한 일, 생태 보존, 기도생활등에 대한 회칙을 소홀히 하게 한다. 기도는 잘 하나 실천은 안한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다.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형제회가 되려면 기도와 활동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단위 형제회는 **교회법적으로** 설립해야 하며, 이로써 전체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첫 번째 세포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볼 수 있는 표지가 된다. 그래서 각 단위 형제회는 **교회의 의식과 프란치**

스코의 성소를 진작시키고 회원의 사도적 생활에 활기를 주기 위한 특전적인 모임이 되어야 한다. (회칙 제22조)

양성자료는 타우지 뒷표지 안쪽에서 볼 수 있다. 초기 양성은 인정된 교재를 사용한다. 회헌 44조 2항에 형제회는 새 종신서약자에게 특별한 양성을 하도록 권고한다. (예컨대 “What it Takes”) 정기적으로 하는 영속적양성은 서약에서 시작하여 죽을 때 까지 계속된다.

영속적양성은 형제회원과 평의회의 공동책임으로 달성된다. 재속회 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한다. 회헌도 이점을 분명히 한다. “**말씀에 생명을 주는 것**” 은 회헌에 영적인 설명을 가하는 것이다.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배운 것은 모임에서, 일상 활동에서, 개인의 기도생활과 회개생활에서 실천하여야 한다.

형제회임원들은 지구의 다른 형제회나 상급형제회와 교류하여야 한다. 각급형제회는 좋은 생각을 서로 공유한다. 생각을 서로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일이다. 형제회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각과 수단과 방법을 공유하는 것은 공동으로 노력할 일이다.

선은 널리 퍼져 나가기 마련입니다. 진리와 선에 대한 모든 참다운 경험은 그 자체로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성향이 있고, 진정한 해방을 맞본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들의 요구에 민감해 집니다. 선은 퍼져 나가면서 뿌리내리고 자라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품위 있고 충만한 삶을 바란다면,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선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바로로 성인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2코린 5,14).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1코린 9,16). 복음의 기쁨 - 프란치스코 교황 #9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 선포자는 기도하며 일하는 복음 선포자입니다. 복음화의 관점에서 보면, 확고한 사회적 선교적 투신이 없는

신비적 제안들은 복음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영성이 없는 사회적 또는 사목적 담론들과 관행들도 복음화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기쁨 - 프란치스코 교황 #262